

파두카에서 진주로

켄터키 주 파두카 시는 미국 중남부 시골 지역에 있다. 인구는 약 25,000명에 불과하지만, 이 지역에는 공예와 민속 예술의 풍부한 문화적 전통들이 많이 있다. “미국 퀼트 도시(Quilt City USA)”로 잘 알려진 파두카는 퀼트 제작자들에게 영감과 교육을 제공하는 국립 퀼트 박물관이 있는 곳이다. 오하이오 강, 컴벌랜드 강, 미시시피 강, 테네시 강들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교통과 휴양 및 교류의 중심지가 되면서 도시의 특별한 느낌을 자아낸다.

파두카는 지난 2년 동안 유네스코 창의도시 행사에서 대한민국 진주와 협력해 왔으며 개인적으로 진주에서 파두카를 대표하는 영광을 누렸다. 나는 예술가이자 예술 관리자로서 섬유와 혼합 미디어 작업에 중점을 둔 개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역사 깊은 파두카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 아트 센터, 예이저(Yeiser) 아트 센터의 전무이사로도 일





하고 있다. 전통예술과 공예 실습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교들을 찾아가거나 지역 사회 행사를 통해 예술을 교육하는 것을 나의 최우선 임무로 여기고 있다.

2021년 가을, '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에 나의 섬유 작품을 전시하도록 초청받았다. 이 작품은 버려진 데님과 카키색 작업 바지를 사용하여 즉흥적으로 퀼트 연결을 탐구한 것이다. 특히 페르난도 자카리아(Fernando Zaccharia), 손챗 창타와랑(Sonchat Changthawarang), 행사 코디네이터인 정병훈 교수와 원탁토론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뛰어난 예술가, 공예인, 큐레이터, 교육자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엄청난 영광이었다. 나는 한국, 베냉, 이탈리아, 태국, 불가리아, 에스토니아의 장인들과 교류하였다. 이번 한국 여행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내가 진주라는 도시와 이토록 사랑에 빠질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진주와 파두카는 전통 직물의 역사, 아름다운 강 풍경, 특별한 레스토랑들, 따뜻하고 친절할 주민들 등 공통점들이 무척 많았다.

2022년 가을 진주 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JWFB)를 위해 두 번째로 진주를 방문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는 들뜬 마음으로 파두카의 참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나는 에이저 아트 센터의 전무이사로서 일하면서 우리 지역 최대의 음악 및 예술 축제인 로어 타운 예술음악 축제(Lower Town Arts & Music Festival:LTAMF)의 감독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 축제

는 매년 봄 파두카의 유서 깊은 로어 타운 지역에서 개최되며 행사 기간 동안 약 20,000명의 방문객을 맞이한다. 우리 지역의 음악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더 휠하우스 루스터즈(The Wheelhouse Rousters)는 "미국 내륙 수로의 소리를 공유하는(sharing the sounds of the American inland waterways)" 지역 그룹으로서, 진주에서 파두카를 대표하여 완벽하게 연주했다. 사운드를 완성하기 위해, 로어 타운 예술음악 축제의 음악 감독이자 첼리스트인 세스 머피(Seth Murphy)가 우리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 우리 일행이 한국을 방문하여 여행하면서 나는 2년 새 두 번째로 이 지역의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되었다. 진주에 도착한 후 진주세계민속비엔날레를 준비하느라 많은 리허설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관광과 새로운 동네 탐방, 향토문화 체험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계획된 워크샵에서 뿐만 아니라 연습과 공연 중 유기적으로 이루어진 문화 간 협력이었다. 한국, 부르키나파소,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나이지리아, 미국, 이집트 등에서 온 사람들과 새로운 우정을 쌓았다. 식사를 함께 하고 환상적인 공연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문화에 대해 배웠다. 우리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감동적인 음악을 들으며 함께 진주 시내와 주변 일대를 탐방했다. 예술을 통해, 우리는 언어장벽을 초월하여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는 경험을 하였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들 간의 교류는 함께 개최된 협력 행사의 개수나 전체 참가자들과 지역사회들의 숫자와 같이 즉각적으로 측정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도시들이 서로에게 미친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추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 나는 의식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새로운 친구들의 문화를 가지고 돌아왔다. 진주에서 열린 행사들의 예술, 음악, 공연은 이제 여러 새로운 나라들로 이동하여 소셜 미디어, 인쇄 출판물, 혹은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공유될 것이다. 앞으로의 조리법들, 언어들, 그리고 연구들은 한국에서 이루어졌던 그 특별한 행사들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진주는 국제교류의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국가 간 이해와 협력을 촉진했다. 진주는 이제 내 마음 속에 살고 있으며, 진주의 노력 덕분에 만나게 된 다른 유네스코 창의도시들과 함께 진주의 예술과 문화를 계속해서 배우고자 노력하고 있다.

렉시 밀리칸

(Executive Director of Yeiser Art Center, Paducah)